대학생의 재무관리행동 유형별 특성 및 재무지식 수준*

Financial Management Patterns and Financial Knowledge of College Students

성신여자대학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조 교 수 차 경 욱**

Dept. of Family Culture & Consumer Science, Sungshin Women's Univ.
Assistant Professor: Cha, Kyung-Wook

〈목 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고찰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및 분석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identified financial management patterns of college students, and compare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mong different groups of financial management patterns. Also, the study examined the level of financial knowledge of college students, and compared it among the groups of financial management patterns. Data for this study were from a questionnaire completed by 4-year college students (n=364), and were analyzed by factor analysis, cluster analysis, chi-square test, and ANOVA.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financial management patterns were categorized by four groups: rational management group, future-oriented group, active management group, and present-oriented group. Secondly, younger students were more likely to be in the present-oriented group, while older students were likely to be in the future-oriented or active management group. Male students were likely to be the active managers, but female were likely to be the rational managers. Students' income was higher for future-oriented or active management groups, and their part-time jobs and their experiences of financial education were also significant variables. Thirdly, the average score of college students' financial knowledge was 49.9 on a 100 point basis. The part of financial assets and investment had only 47 points. The group of rational managers and active managers received higher points than the other groups.

* 이 논문은 2004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주저자, 교신저자 : 차경욱(kwcha@sungshin.ac.kr)

Key Words : 재무관리행동유형(financial management patterns), 재무지식(financial knowledge), 대학생 (college students)

I. 서 론

오늘날 정보화와 국제화의 영향력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가계를 둘러싼 경제 환경 역시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금융 시스템의 전산화를 통해 소비자들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저축 및 지출관리, 세금관리, 투자 정보관리 등이 용이하게 되었고, 금융시장 개방에 따라 투자영역이 확대되어 보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금융공학의 발전에 힘입어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자산투자 및 보존 방법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경제 환경의 변화를 인지할 때, 소비자 개인과 가계가 재정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효과적인 재무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올바른 재무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연령대에 속해있는 대학생 소비자들의 재무관리행동과 재무지식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부모로부터 독립을 시작하고, 개별 경제주체로서 독자적인 삶을 준비하고 계획해야 하며, 이는 대학생들의 현재 생활 뿐 아니라 미래의 경제적 복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몇 해 전 한국, 미국, 일본 20대 소비자들의 소비와 금융 행태를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재무관리 능력과 재무지식 모두 상당히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월수입의 약 70%를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용돈을 포함한 월평균 소득 대비 소비 비중도 86.4%로 3개국 중 가장 높았고, 저축을 전혀 하지 않는 비율이 61.6%로 나타나 미국(12.1%), 일본(16.6%)과 큰 격차를 보여주었다(김정인 · 송훈 · 나상록, 2002).

다행히 최근에 들어서는 20대 소비자들의 70%가 재테크를 하고, 대학생들 사이에서 재테크 관련 특강이나 강연회가 인기를 끌며, 구체적인 투자전략과 방법을 연구하는 온 · 오프라인의 동호회가 급증하고, 서점가에서도 20대의 재무관리 전략을 다룬 서적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신문기사가 종종 나오고 있다(데이터뉴스, 2005년 10월 10일자; 세계일보, 2005년 10월 2일자; 세계일보, 2007년 1월 14일자). 이는 몇 해 전부터 유행처럼 확산된 재테크, 부자되기의 열풍이 대학생들에게까지 확대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체계적인 재무설계와 전문적인 재무지식, 합리적인 재무관리행동 능력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의 수익성을 중심으로 한 재테크 전략에만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TV와 인터넷, 도서 등을 통해 수많은 정보들을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실제로 필요한 정보를 올바로 습득하고 효과적인 재무관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과 가계가 행하고 추구하는 재무행동 특성 및 사회 · 경제적 환경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현재 안정적인 소득원과 구매력, 풍부한 재정자원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의 재무관리행동과 재무지식은 미래의 소득활동, 재정자원의 관리, 증대 및 보존 행동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대학생들이 재무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본지식이나 기술 측면에서 상당히 부족한 수준임을 지적하고 있다(Avard, 2005; Chen,

1998; Chen & Volpe, 1998; Horgarth, Beverly & Hilgert, 2003; 김경자, 2003; 김경자, 홍정하, 2002; 김효정, 2005).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대게 재무관리행동을 세부 영역으로 나누어 각각에 대해 대학생들의 재무관리 수행정도나 재무지식 수준을 조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러나 보다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의 재무행동 특성에 따라 재무관리행동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별 특성과 재무지식 수준을 비교하는 시도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대학생들의 영역별 재무행동 특성을 파악하여 재무관리행동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에 속하는 대학생들의 사회·경제적, 교육적 특성을 비교하고자 한다. 또한 보다 정교화된 측정도구를 구성하여 대학생들의 재무지식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재무관리행동 유형별로 비교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재무관리행동 유형별 특성을 규명하고, 재무관리행동과 재무지식 간의 연관성을 파악함으로서, 바람직한 재무관리행동의 지침을 마련함은 물론 대학생의 재무관리를 보다 건전한 방향으로 주도하고 그들의 재무지식 수준을 향상시키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대학과 금융기관,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사회적인 재무교육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II. 선행연구고찰

1. 재무관리행동

재무관리행동은 재정자원을 획득하여 효율적으로 소비, 보존, 증대시킴으로서 개인과 가계가 기대하는 생활양식에 적합한 재무목표를 달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재정적 복지를 실현해 가는 전 생애에 걸친 과정으로 정의된다. 즉 재무관리행동은 소득과 부를 극대화하고 효율적 소비를 실현하며, 이를 통해 재정적 안정을 구축하고 생활만족도를 달성하는 일련의 과정이다(이기춘 등, 2000; 이연숙 등, 2000; 정순희, 2003). 또한 재무관리행동은 현재의 재무상태를 평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며, 장단기 재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실행한 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수정하는 단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재무관리행동의 영역은 선행연구들에서 다양하게 세분화되었다. Fizsimmons 등(1993)은 재무관리행동을 측정하는 지표로 재무계획, 예산, 계획에 따른 수행, 구매기술, 소득의 적정도 등을 제시했고, Poter와 Garman(1993)은 재무관리행동을 현금관리, 신용관리, 자산축적, 위험관리, 은퇴와 상속, 일반적 재무관리의 6가지 영역으로 세분화하였으며, Horgarth, Beverly와 Hilgert(2003)는 예산수립과 현금관리, 신용관리, 저축, 자산관리의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홍향숙(1999)은 소득관리, 지출관리, 세금관리, 부채관리, 투자관리, 위험관리 행동으로, 정운영과 황덕순(2002)은 현금 및 지출관리, 차용관리, 세금관리, 위험관리, 저축 및 투자관리, 은퇴 및 상속계획으로 분류하여 재무관리행동을 분석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하여 재무관리를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였는데, 대부분 '보통이다'의 수준이었고 각 항목별로 큰 편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선행연구들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었으나, 대체로 장·단기 재무목표 수립, 저축 계획, 소득과 지출내역 기록 및 평가 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재무관리행동이 계획성 있게 행해

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김효정(2005)은 부산 및 경남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단기 재무목표 수립, 장기 재무목표 수립, 예산 수립, 쇼핑리스트 작성, 지출영수증 보관, 소득과 지출 기록, 정기적인 저축행동, 그리고 지출 후 평가 및 반성 등 7개의 재무관리행동 항목을 5점 척도로 조사하였는데, 전체적으로 '보통이다'(3.03점)의 수준이었다. 항목별로는 예산수립, 쇼핑리스트 작성, 지출영수증 보관 등 소비지출과 관련된 재무관리행동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고, 단기와 장기 재무목표 수립 행동은 평균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김경자와 홍정하(2002)는 재무계획 수립, 저축 및 소비지출 내역 기록, 지출통제, 재무관리 정보탐색의 4가지 재무관리행동 수행 정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하였는데, 이 역시 전체 평균 3.0점으로 '보통이다'의 수준이었고, 특히 저축 및 소비지출 내역 기록과 재무관리 정보탐색 행동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대학생의 화폐태도와 재무관리행동 실태를 분석한 김경자(2003)는 장·단기 재무목표의 여부, 소득의 획득 및 배분, 저축 및 소비에 대한 재무계획 여부, 소득과 지출의 기록 및 평가 여부, 신용관리행동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장·단기 재무목표를 모두 가지고 있는 대학생은 12%에 불과했고, 평균적으로 소득의 90% 이상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필요한 경우에만 가끔 저축과 소비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는 대학생이 57%였고, 소득과 지출 기록을 전혀 하지 않는 대학생도 62%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처럼 재무관리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과 행동은 상당히 부족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들이 다양한 세부 영역에서 대학생들의 재무관리 수행정도를 조사함으로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 반면, 이를 보다 체계화하여 재무관리행동 유형을 정리한 연구는 거의 없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지만, Horgarth, Beverly와 Hilgert(2003)는 현금관리, 저축, 투자행동을 중심으로 그 수행능력을 상중하로 구분한 후, 최종적으로 재무관리행동을 7개로 유형화하였다. 또한 각 유형별로 사회·인구학적 특성, 재무지식 수준과 재무안정성을 비교함으로서, 보다 구체적인 재무교육 프로그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무관리행동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특성과 요구를 파악하는 것은 재무관리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과 행동 역량을 증진시키고, 보다 효과적인 재무교육 프로그램을 고안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재무지식

재무지식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연구 목적과 대상에 따라 측정 영역과 척도를 다소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재무관리행동 영역별로 요구되는 기본적인 지식을 조사하였으며, 그 측정방법은 주로 응답자가 스스로 자신의 재무지식 수준을 평가하도록 고안하거나, 특정 개념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단답형으로 질문하는 형태를 취하였다(Avard, 2005; Jump$tart Coalition, 2002; McDowell, 2000; 김경자, 1998; 김경자·홍정하, 2002; 김효정, 2005).

대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영역의 재무지식을 평가, 분석한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대학생들의 재무지식이 부족한 수준임을 보고하였다. 대학교 1학년 학생 407명을 대상으로 20개의 객관식 문항을 이용하여 기본적인 재무지식을 평가한 Avard(2005)의 연구 결과는 100점 만점에 평균 34.8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고, 80점 이상을 받은 학생은 단 1

명, 0점을 받은 학생도 6명으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그는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대학교 교양필수 과목으로 재무관리 관련 과목을 개설하여 문제 해결에 노력을 기울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Jump$tart Coalition(2002)에서 매 2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재무지식 평가 결과 역시 재무지식이 부족한 수준임을 보여주었는데, 고등학생들의 경우 2000년에는 51.9%, 2002년에는 50.2%만이 정답을 맞힌 것으로 나타났고, 많은 학생들이 수지의 균형을 고려하지 않으며, 대부분 소득, 지출, 저축 및 투자와 관련된 기본적인 원리를 모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McDowell(2000)은 동일한 문제지를 성인 소비자들에게 적용하였는데, 정답률은 조금 상승했지만 여전히 보험이나 신용과 관련된 지식은 매우 부족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저축, 대출, 보험 및 투자에 대한 재무지식을 측정한 Chen(1998) 역시 전반적으로 대학생들의 재무지식이 부족하다고 보고하였으며, 특히 투자와 관련된 지식은 정답률이 40% 이하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는 재무지식의 부족이 올바른 재무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개인의 재무관리능력 부족은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미국 중부의 대학생 643명을 대상으로 재무문제에 대한 관심과 재무지식, 재무문제 실태를 분석한 Baek(2001)의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의 63%가 신용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답한 반면, 예산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지출을 하는 대학생은 16%에 불과했다. 또한 조사대상의 26% 정도가 재무문제를 겪고 있었고, 34%는 특히 소비지출과 관련하여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으로 재무지식 수준이 낮고 재무행동이 부정적인 집단은 재무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재무관련 불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서울 및 수도권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770명을 대상으로 금융 이해력을 측정한 결과, 평균 점수가 48.2점으로 미국 고등학생들의 평균 점수(52.4점) 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는 소득 50.6점, 재무관리 48.3점, 저축과 투자 50.5점, 지출과 부채 45점 등이었는데, 안전한 저축방법과 다양한 지불수단에 대한 이해 수준을 묻는 문항은 정답률이 83.6~85.1%로 높은 반면, 신용카드, 자동차보험, 금융상품 투자 수익률에 대한 문항은 11.3~18.6%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머니투데이, 2006년 11월 1일자).

김경자와 홍정하(2002)는 경기도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 재학생 202명을 대상으로 재무지식과 돈에 대한 관심을 분석하였다. 재무설계 기초, 저축 및 투자, 신용카드와 부채관리, 세금관리, 보험의 5가지 영역에서 총 12개의 항목을 제시하고 대학생 스스로 자신의 재무지식 수준을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한 결과, 전체 평균이 2.3점으로 '거의 모른다'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특히 세금과 생명·건강보험, 주식투자, 신용불량과 소비자파산 등에서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신용카드 보유율은 50%가 넘었지만 대출과 부채관리에 대해서 '아주 잘 안다' 혹은 '아는 편이다'라고 답한 학생은 단지 12%였으며, 신용불량과 소비자파산에 대해서 '아주 잘 안다' 혹은 '아는 편이다'라고 답한 학생도 30%에 불과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재무지식 수준이 낮은 것과는 상반되게 조사대상자의 68%가 돈 문제에 관심이 많다고 답하였고, 74%가 강한 경제적 자립의지를 나타냈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공통적으로 청소년 및 대학생들의 재무지식이 부족한 수준임을 보여주었고 특히 지식수준이 낮은 분야들을 지적하였다. 또한 재무지식의 부족이 재무의사결정과 재무관리행동, 나아가 개인과 사회의 재정적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사안임을 인지하는 가운데, 재무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3. 관련변인 고찰

재무관리행동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연령, 성별, 교육수준, 취업여부, 가계소득, 재무지식 등을 유의한 관련 변인으로 제시하였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에서는 특히 성별에 따른 차이가 강조되었으며, 학년, 부모의 교육수준, 가계소득, 대학생의 용돈수준, 신용카드 사용여부, 재무지식 및 재무교육 경험 여부 등이 유의한 변인으로 보고되었다.

가계의 재무관리행동을 분석한 Davis와 Weber (1990), Titus, Fanslow와 Hira(1989) 등은 가구주의 연령이 가계의 생애주기별 소득수준과 관계가 깊으며, 가구주의 연령이 낮을수록 재무관리 수행능력이 우월하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Horgarth, Beverly와 Hilgert(2003)은 재무관리행동 영역에 따라 연령의 차이가 나타남을 보고하였는데, 저축관리만을 잘하고 다른 영역의 능력이 부족한 집단은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았고, 투자관리 능력이 우월한 집단의 연령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효정(2005)의 연구에 따르면, 학년이 높을수록 쇼핑리스트를 작성하여 계획적으로 구매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으나, 여타의 재무관리행동에서는 학년이 유의한 영향력을 갖지 않았다.

Williams(1991)는 재무관리 영역에 따른 성별의 차이를 설명하였는데, 예산수립, 구매목록 작성, 소득 및 지출 기록, 영수증 보관 등 구체적인 실행은 여성이 남성 보다 우월한 반면, 지출액 추정, 순가치 환산, 금전관리에 대한 정보탐색 및 수집 등에서는 남성이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의 대상으로 한 Hayhoe, Bruin과 Lawrence(2000)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예산 수립, 쇼핑리스트 작성, 지출계획, 정기적인 저축, 영수증 보관 등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정훈(1993)의 연구에서는 소득과 지출의 기록 및 점검 등 금전관리의 구체적인 실행은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더 잘하나, 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지식수준, 정보탐색 노력 등에서는 남학생이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효정(2005)의 연구에서도 역시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예산을 잘 세우고 쇼핑리스트를 잘 작성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교육수준의 영향력은 선행연구들 간에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Horgarth, Beverly와 Hilgert(2003)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현금관리, 저축, 투자 영역 모두에서 재무관리행동 점수가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2년제 대졸 이상인 집단은 특히 현금관리와 저축에서 2년제 대졸 이하의 집단들 보다 탁월한 관리 능력을 보여주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예산 수립, 쇼핑리스트 작성, 소득 및 지출 기록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훈, 1993; 김효정, 2005). 반면, Joo와 Grable(2004)의 연구에서는 대졸 이상 보다는 대졸 미만일 때 재무관리행동 능력이 더 뛰어나다고 보고된 바 있다.

가계소득은 재무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재정자원이므로 재무관리행동에 직접,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Joo, Grable, 2004; Titus, Fanslow & Hira, 1989; Godwin & Koonce, 1992). 대학생들의 경우, 월평균 용돈이 적을수록 쇼핑리스트 작성과 소득 및 지출 기록 등 계획성 있는 재무관리를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신, 2005; 김효정, 2005; 황덕순, 홍은실, 2002). 신용카드의 사용여부가 재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김효정(2005)의

연구에서는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는 집단 보다 단기 재무목표를 세우는 경향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Walker(1996)와 김영신(2005)의 연구 등에서는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재무지식과 재무교육 경험은 재무관리행동 및 재무문제 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서, 개인이나 가계의 재무계획 수립과 실행 과정에서 정적인 영향력을 보여주었다(Horgarth, Beverly, & Hilgert, 2003; Mugenda, 1990; Titus, Fanslow & Hira, 1989). Kotlikoff와 Bernheim(2001)은 교육수준이 낮고 저소득층인 경우, 재무지식 수준이 낮으며 재무관리 수행능력 역시 취약하다고 보고하였으며, Chen과 Volpe(1998)의 연구에서는 재무지식 수준이 높은 대학생들이 재무문제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더 정확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orgarth, Beverly와 Hilgert(2003) 역시 재무지식 수준이 높은 집단이 현금관리, 저축행동 및 투자관리의 영역 모두에서 우월한 재무관리행동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재무관리행동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에 속하는 대학생들의 사회, 경제적, 교육적 특성을 비교하며, 각 유형별로 재무지식 수준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대학생들의 재무관리행동 유형별 특성을 규명하고, 재무관리행동과 재무지식 간의 연관성을 파악함으로서, 바람직한 재무관리행동의 지침을 마련함은 물론 실효성 있는 재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대학생들의 재무관리행동 유형은 어떻게 분류 되는가.

<연구문제 2> 재무관리행동 유형별로 대학생들의 사회, 경제적, 교육적 특성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 재무관리행동 유형별로 대학생들의 재무지식 수준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 및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학교육 기관의 지역적 분포,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서울 소재 5개 대학교에 250부, 경기도 소재 3개 대학교에 150부, 인천 소재 1개 대학교에 3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 대상자의 성별, 학년을 고려하여 유의할당 표집을 수행하였다.

본조사에 앞서 2005년 2월 10일부터 2월 21일까지 50명의 대학생(서울 소재 1개 대학교, 경기도 소재 1개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들의 응답을 분석한 후 설문지의 일부항목을 수정, 보완하였다. 본조사는 2005년 3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총 43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379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부실 기재되어 분석이 용이하지 않은 자료를 제외하고, 총 364부를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3. 측정도구의 구성 및 분석방법

대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재정자원을 관리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를 유형화하기 위하여 선행연구(김정훈, 2002; 김효정, 2005; 정순희, 2003; Horgarth, Beverly & Hilgert, 2003; Garman & Forgue, 1997; Wahlund & Gunnarsson, 1996, 1997)를 토대로 연구자의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20개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내적일관성을 검증하는 신뢰도계수(Cronbach's alpha) 검증 및 각 문항의 변별력을 조사하는 항목분석(Item analysis)을 실시하여 이 중 부적합한 3개 문항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7문항을 추출하였다.

대학생들의 재무지식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4지선다형 객관식 20문항을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선행연구들이 주로 조사대상자 본인의 재무지식 수준을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도록 고안하거나, 특정 개념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단답형으로 질문한 것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시험 문제형 설문조사 도구를 사용했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인 측정이 가능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재무지식은 전문적인 금융지식이라기 보다는, 대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재정자원을 관리, 증대, 보존하는데 필요한 주요 개념들의 의미와 기능에 관한 것이다.

재무지식 수준을 측정하는 문항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선정되었다. 먼저 국내외의 대학교에서 가계재무설계, 가계투자 및 보험 등 관련 교과목의 전공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서적(이기춘 외, 1998; 이연숙 외, 2000; 정순희, 2003; 허경옥 외, 2006; Garman & Forgue, 1997; Israelsen & Weaglery, 2001; Mayo, 1997; Redja, 1998)과 증권계, 은행계, 보험계의 FP(Financial Planner) 자격시험 대비서, Bowen(2002)의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 그리고 신문기사, 금융관련 잡지, 인터넷 재무관리 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판단지표를 참고하여 4지선다형 객관식 35개 문항을 작성하였다. 이와 같이 작성된 문항을 재무설계 전문가 4명에게 의뢰하여 안면타당도(face validity)를 검증하고, 보다 타당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된 20문항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였다.

재무지식을 평가하는 20개 문항은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재무기초 영역에는 경제동향 2문항, 재무설계 기본지식 2문항이 포함되었고, 현금관리 영역에는 소득과 지출관리 3문항, 신용과 부채관리 2문항이, 자산운용 영역에는 자산운용 기본지식 1문항, 금융기관과 금융상품 3문항, 주식·채권·부동산 3문항이 포함되었으며, 마지막으로 보험 및 은퇴설계 영역에는 위험관리와 보험 3문항, 은퇴설계 1문항이 포함되었다.

조사대상 대학생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학년(연령), 성별,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주 직업, 주성장지 및 부모와의 동거여부를 조사하였고, 경제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월평균 가계소득, 대학생 본인의 월평균 지출 가능액(용돈, 아르바이트 및 기타 소득원을 통해 획득한 가처분소득 총액), 아르바이트 여부와 신용카드 사용여부를 조사하였다. 또한 교육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학과전공과 재무교육 경험여부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대학생들의 재무관리행동을 유형화하기 위해 17개의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유사한 재무관리행동을 보이는 대학생들을 묶어 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일원분산분석(ANOVA)과 사후검증을 통해 군집의 수를 결정한 후, 각 군집 별로 사회·인구학적, 경제적, 교육적 특성

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카이제곱(χ^2)검증 및 일원분산분석을 적용하였다. 또한 재무관리행동 유형에 따라 영역별 재무지식 수준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적용하였다.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경제적, 교육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조사대상인 대학생들의 평균 연령은 22.5세였으며, 3학년이 32.4%로 가장 많았고, 2학년 27.8%, 4학년 22.5%, 그리고 1학년 17.3%의 순으로 구성되었으며, 남학생이 41.5%, 여학생이 58.5%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의 가계 특성을 살펴보면, 가구주의 47.5%가 2년제 대졸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었으며 가구주의 직업은 사무직이 34.3%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이 28.0%, 전문·관리직이 23.4%를 차지했다. 대학생들의 62.9%가 서울 및 대도시에서 주로 성장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61.3%는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으며 나머지 38.7%는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대학으로 진학함에 따라 부모와 따로 떨어져 기숙사, 하숙, 자취 등의 형태로 거주하고 있었다.

조사대상 대학생들의 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월평균 가계소득은 363.8만원 정도로 통계청(2005)에서 발표한 2005년 1/4분기 도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64)

변 수	구 분	빈도(%) 또는 평균(표준편차)	변 수	구 분	빈도(%) 또는 평균(표준편차)
사회·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학년	1학년	63 (17.3)	월평균 가계 소득	200만원 미만	46 (12.6)
	2학년	101 (27.8)		200~300만원 미만	121 (33.2)
	3학년	118 (32.4)		300~400만원미만	112 (30.8)
	4학년	82 (22.5)		400만원 이상	85 (23.4)
연령 (세)		22.5 (1.43)		평균 (만원)	363.8 (247.7)
성별	남자	151 (41.5)	대학생 월평균 지출 가능액	20만원 미만	39 (10.7)
	여자	213 (58.5)		20~30만원 미만	168 (46.2)
가구주 교육수준	중졸 이하	37 (10.2)		30~40만원 미만	75 (20.6)
	고졸(중퇴포함)	154 (42.3)		40만원 이상	82 (22.5)
	2년제 대졸이상	173 (47.5)		평균 (만원)	27.4 (22.1)
가구주 직업	무직·단순노무직	52 (14.3)	아르바이트 여부	한다	206 (56.6)
	자영업	102 (28.0)		하지 않는다	158 (43.4)
	사무직	125 (34.3)	신용카드 사용여부	한다	221 (60.7)
	전문·관리직	85 (23.4)		하지 않는다	143 (39.3)
주성장지	서울 및 대도시	229 (62.9)	교육적 특성		
	중소도시	101 (27.8)	학과전공	인문·사회계열	163 (44.8)
	기타	34 (9.3)		자연·공학계열	134 (36.8)
				예체능계열	67 (18.4)
거주 형태	부모와 동거	223 (61.3)	재무교육 경험	있다	146 (40.1)
	부모와 분리거주	141 (38.7)		없다	218 (59.9)

시 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329만원) 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었고,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가계가 33.2%,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인 가계가 30.8%로 나타났다. 대학생 본인의 월평균 지출가능액은 부모로부터 받는 용돈, 아르바이트 및 기타 소득원을 통해 획득하여 자유재량으로 처분 가능한 총액을 의미하는데 평균 27.4만원으로 조사되었고, 46.2%가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22.5%가 40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6.6%의 대학생들은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으며, 조사대상의 60.7%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 대학생들의 교육적 특성을 보면, 전공 분포는 44.8%가 인문·사회계열, 36.8%가 자연·공학계열, 18.4%가 예체능 계열이었으며, 조사대상의 40.1%가 학교, 금융기관 및 기타 기관에서 개인 및 가계재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연구결과 및 분석

1. 재무관리행동 유형 분류

조사대상 대학생들의 재무관리 행동을 유형화하기 위하여 17개의 문항을 이용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수행하였다. 아이겐값(Eigen value)이 1 이상인 요인을 추출하도록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하고 직교회전(varimax rotation)방식을

〈표 2〉 재무관리행동 유형화를 위한 요인분석

구 분	문 항 내 용	요인 적재치	아이겐값 (설명분산)	신뢰도 계수
[요인1] 합리적 관리형	•소득이 생기면 계획을 세워 지출한다.	0.705	4.104 (25.1%)	.87
	•매달 일정액을 저축하고 있다.	0.686		
	•가계부 혹은 금전출납부를 쓰고 있다.	0.693		
	•쇼핑을 하기 전에 필요물품 목록을 작성한다.	0.749		
	•구매 후 영수증을 확인하고 보관한다.	0.598		
[요인2] 미래 계획형	•대학 졸업 후 취업, 경제활동 계획이 세워져 있다.	0.810	2.157 (14.6%)	.74
	•용돈 이외의 소득을 벌기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	0.694		
	•미래의 장기적인 재무목표를 가지고 있다.	0.703		
	•재무설계를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불확실 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0.638		
[요인3] 적극적 관리형	•주식, 펀드 등에 투자하고 있다.	0.692	1.695 (11.7%)	.79
	•재무설계와 재테크 정보에 관심이 많다.	0.765		
	•신문, 인터넷에서 경제뉴스를 관심 있게 읽는다.	0.776		
	•학교, 금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재무교육에 참가 한 적이 있다.	0.821		
	•위험부담이 따르더라도 수익이 높은 투자를 선호한다.	0.732		
[요인4] 현재 지향형	•미래를 준비하고 저축하기 보다는 현재의 소비를 더 중시한다.	0.738	1.301 (9.3%)	.66
	•재무설계를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효율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서이다.	0.576		
	•현재 돈이 부족하더라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매한다.	0.771		
			9.257 (60.7%)	

이용한 결과, 4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이들 4개의 요인은 총 분산의 60.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각각의 요인들은 요인적재치가 .50 이상인 변수들로 구성되었다. 각 요인 별로 문항 간 내적 일치도를 검증한 결과, 신뢰도계수(Cronbach's alpha)는 요인 1이 .87, 요인 2가 .74, 요인 3이 .79, 요인 4가 .66 으로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재무관리 행동의 유형화를 위해 실시한 요인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5개의 문항이 포함된 요인 1은 총 분산의 25.1%를 설명하고 있었다. 이는 계획성 있게 지출하고 수입과 지출 내역을 기록, 관리하며 일정액을 저축하는 등의 재무행동 특성을 보여주었으므로 합리적 관리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2에는 4개의 문항이 포함되었고 설명 분산이 14.6%이었는데, 미래의 경제생활에 대비하는 행동 특성을 보이고 장기적인 재무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미래 계획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3은 5개의 문항을 포함하였으며 총 분산의 11.7%를 설명하였다. 이는 대체로 주식이나 펀드 등 수익성 높은 투자대안을 선호하고 재무설계 및 재무관리 정보에 관심이 높은 행동 특성을 나타냈으므로 적극적 관리형이라고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인 4에는 3개의 문항이 포함되었으며 설명 분산은 9.1%로 나타났는데, 미래를 위한 재무설계 보다는 현재의 소비생활을 중시하는 성향을 보여주었으므로 현재 지향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분석 결과로 얻어진 각각의 재무관리 행동 유형에서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대학생들을 묶어 그들의 동질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k-means 방법을 이용하여 군집의 개수를 2개, 3개, 4개, 5개로 지정한 후 각각 ANOVA와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군집별 평균 요인점수를 비교하였다. 또한 평균 요인점수가 그 표준편차 보다 크면 요인점수가 높은 것으로 보고, 표준편차의 음의 값보다 작으면 요인점수가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그 사이의 값을 가지면 중간이라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요인의 수와 동일하게 군집을 4개로 범주화했을 때 특정 군집의 평균 요인점수가 타 군집의 평균 요인점수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 군집의 명칭도 요인의 명칭과 동일하게 부과하였다. <표 3>에는 4개 군집의 평균 요인점수와 표준편차가 제시되어 있는데, 첫 번째 군집은 합리적 관리 요인에서 평균 점수가 가장 높고, 그 값이 표준편차 보다 크므로 합리적 관리형, 두 번째 군집은 미래계획 요인 평균 점수가 표준편차 보다 크지는 않지만, 다른 군집의 평균 점수 보다 높으므로 미래 계획형, 세 번째 군집은 적극적 관리 요인의 평

〈표 3〉 군집별 평균 요인점수와 표준편차

(n=364)

요인 \ 군집	1군집 합리적 관리형 (n=78)	2군집 미래 계획형 (n=127)	3군집 적극적 관리형 (n=96)	4군집 현재 지향형 (n=63)
합리적 관리	0.89 (0.78)	0.27 (0.69)	0.03 (0.93)	0.32 (1.13)
미래계획	0.41 (0.82)	0.64 (0.91)	0.45 (0.82)	-0.37 (0.89)
적극적 관리	0.25 (0.74)	0.39 (1.01)	0.87 (0.83)	-0.12 (0.91)
현재지향	-0.18 (1.00)	-0.74 (0.97)	-0.47 (1.05)	0.56 (0.88)

* ( )안은 표준편차임.

균 점수가 가장 높을뿐더러 이 값이 표준편차보다 크므로 적극적 관리형, 네 번째 군집은 현재지향 요인에서 평균 점수가 가장 높으므로 현재 지향형으로 분류되었다.

2. 재무관리행동 유형별 특성 비교

앞서 분류한 재무관리행동 유형별로 조사대상 대학생들의 사회·인구학적, 경제적, 교육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에서

〈표 4〉 재무관리행동 유형별 특성 비교

(n=364)

변 수	구 분	합리적관리형 (n=78)	미래계획형 (n=127)	적극적관리형 (n=96)	현재지향형 (n=63)	χ^2 / F
사회·인구학적 특성						
학년	1-2학년	38 (48.7)	46 (36.2)	39 (40.6)	41 (65.1)	9.97*
	3-4학년	40 (51.3)	81 (63.8)	57 (59.4)	22 (34.9)	
성별	남자	20 (25.6)	46 (36.2)	56 (58.3)	29 (46.0)	11.23**
	여자	58 (74.4)	81 (63.8)	40 (41.7)	34 (54.0)	
가구주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1 (14.1)	9 (7.1)	7 (7.3)	10 (15.9)	8.41*
	고졸	34 (43.6)	66 (52.0)	33 (34.4)	21 (33.3)	
	2년제 대졸이상	33 (42.3)	52 (40.9)	56 (58.3)	32 (50.8)	
가구주 직업	무직·단순노무직	9 (11.5)	19 (15.0)	14 (14.6)	10 (15.9)	4.83
	자영업	24 (30.8)	38 (29.9)	28 (29.2)	12 (30.2)	
	사무직	33 (42.3)	46 (36.2)	27 (28.1)	19 (30.2)	
	전문·관리직	12 (15.4)	24 (18.9)	27 (28.1)	22 (34.9)	
주 성장지	서울 및 대도시	46 (59.0)	83 (65.3)	68 (70.8)	32 (50.8)	6.22
	중소도시	25 (32.0)	33 (26.0)	22 (22.9)	21 (33.3)	
	기타	7 (9.0)	11 (8.7)	6 (6.3)	10 (15.9)	
거주 형태	부모와 동거	37 (47.4)	65 (51.2)	75 (78.1)	46 (73.0)	18.49***
	부모와 분리거주	41 (52.6)	62 (48.8)	21 (21.9)	17 (27.0)	
경제적 특성						
월평균 가계소득 (만원)		352.84 b	364.23 b	390.07 a	348.21 b	4.61*
대학생 월평균지출 가능액 (만원)		23.27 c	26.09 b	30.36 a	29.99 a	8.07***
아르바이트 여부	한다	38 (48.7)	87 (68.5)	60 (62.5)	21 (33.3)	20.06***
	하지 않는다	40 (51.3)	40 (31.5)	36 (37.5)	42 (66.7)	
신용카드 사용여부	한다	43 (55.1)	79 (62.2)	59 (61.5)	40 (63.5)	4.24
	하지 않는다	35 (44.9)	48 (37.8)	37 (38.5)	23 (36.5)	
교육적 특성						
학과 전공	인문·사회계열	34 (43.6)	59 (46.5)	45 (46.9)	25 (39.7)	2.98
	자연·공학계열	30 (38.5)	48 (37.8)	34 (35.4)	22 (34.9)	
	예체능계열	14 (17.9)	20 (15.7)	17 (17.7)	16 (25.4)	
재무교육 경험	있다	38 (48.7)	42 (33.1)	49 (51.0)	17 (27.0)	17.14***
	없다	40 (51.3)	85 (66.9)	47 (49.0)	46 (73.0)	

*p<.05 **p<.01 ***p<.001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같은 문자로 표기된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는 학년, 성별, 가구주 교육수준, 그리고 거주형태가 대학생들의 재무관리행동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대학교 1-2학년 학생들은 재무관리행동 유형 중 현재 지향형에 속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미래 계획형에 속하는 비율은 낮은 반면, 3-4학년은 미래 계획형과 적극적 관리형에 속하는 경향이 높았다. 1-2학년들의 경우 아직은 현재의 소비를 중시하고, 미래에 대한 재무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데 반해, 3-4학년이 되면 졸업 후 경제활동과 장기적인 재무설계에 관심을 갖게 되고,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재정자원을 관리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들은 적극적 관리형에 속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합리적 관리형에 속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선행연구(Hayhoe, Bruin & Lawrence, 2000; Williams, 1991; 김정훈, 1993; 김효정, 2005)에서 여성이 주로 예산수립, 구매목록 작성, 소득 및 지출 기록, 영수증 보관, 정기적인 저축 등을 잘하고, 남성은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고 금전관리에 대한 정보 수집을 잘한다고 보고한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대학생의 재무관리행동 유형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가구주가 중졸 이하인 경우에는 현재 지향형에, 고졸인 경우에는 미래 계획형에, 그리고 2년제 대졸 이상인 경우에는 적극적 관리형에 속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예산수립, 소득 및 지출기록 등의 재무관리행동을 잘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김정훈, 1993; 김효정, 2005)와 유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가구주가 중졸 이하인 경우 직업 지위나 소득수준도 낮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장기적인 재무설계와 적극적인 재무관리행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가구주의 직업에 따라 대학생들의 재무관리행동 유형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대학생들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그들의 재무관리행동 유형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부모와 동거하는 대학생들은 미래 계획형, 적극적 관리형과 현재 지향형에 속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대학생들은 합리적 관리형에 속하는 비율이 높았다. 부모와 따로 떨어져 사는 경우, 부모로 받은 용돈이나 아르바이트를 통해 얻은 소득을 스스로 관리하고, 적절하게 배분하여 소비지출을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재무관리행동을 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조사대상 대학생들이 가진 경제적 특성에 따라 재무관리행동 유형을 살펴본 결과, 월평균 가계소득, 대학생의 월평균 지출 가능액, 그리고 아르바이트 여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월평균 가계소득의 경우, 적극적 관리형에 속하는 대학생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대학생들의 월평균 지출 가능액, 즉 용돈 및 아르바이트 소득 등을 포함하여 자유재량으로 사용가능한 돈의 액수는 재무관리유형별로 가시적인 차이가 나타났는데, 적극적 관리형과 현재 지향형에 속하는 대학생들은 각각 평균 30.36만원과 29.99만원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미래 계획형 집단이 평균 26.09만원이었고, 합리적 관리형에 속하는 대학생들은 평균 23.27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가용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학생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소득과 지출관리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반면, 가용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대학생들은 현재의 소비를 중시하는 유형과 자산운용 및 정보 수집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유

형으로 나뉘어 나타났는데, 이는 시간가치에 대한 개인의 선호에 따라 현재 지향적인 재무관리를 할 것인지, 혹은 불확실한 미래가치를 위해 현재의 소비를 포기하는 선택을 할 것인지가 달라지고, 가계의 재무안정성, 부모의 재무관리행동 등과 같은 가계 특성 및 환경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이러한 변인들을 통제하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 될 것이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의 경우, 미래 계획형과 적극적 관리형에 속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장기적인 재무목표의 실현을 위해, 그리고 적극적인 자산운용을 위한 재정자원의 창출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조사대상 대학생들의 교육적 특성 중에서, 학과전공은 재무관리행동 유형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재무교육 경험여부만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학교나 금융기관, 기타 기관에서 재무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은 합리적 관리형과 적극적 관리형에 속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과 지출관리, 투자 및 자산운용 등과 관련된 재무교육의 경험이 대학생들의 재무관리행동 유형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선행연구들(Chen & Volpe, 1998; Horgarth, Beverly & Hilgert, 2003)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3. 재무관리행동 유형별 재무지식 수준 비교

조사대상 대학생들의 재무지식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20개의 4지선다형 객관식 문항을 제시하고 정답을 표기하도록 요구한 결과,

〈표 5〉 재무지식 수준 측정 결과

영 역		문항수	문항별 세부내용	정답률(%)
재무 기초	경제동향	2	- 금리와 인플레이션의 관계 - 경기변동과 가계투자행동	29.1 48.7
	재무설계 기본지식	2	- 재무설계 과정 - 화폐의 시간가치 (복리와 저축기간 관계)	71.1 59.0
현금 관리	소득과 지출관리	3	- 소득의 종류 (근로, 재산, 사업소득) - 고정지출과 변동지출 - 연말정산과 소득공제	72.3 61.8 34.1
	신용과 부채	2	- 판매신용 (외상, 할부, 신용카드) - 부채상한선과 적정성	63.2 32.6
자산 운용	자산운용 기본지식	1	- 수익성, 안전성, 유동성의 관계	64.3
	금융기관과 금융상품	3	- 시중은행과 제 2금융권 예금기관 - CD(양도성예금증서)의 특징 - 예금자보호제도	47.9 21.7 35.4
	주식, 채권, 부동산	3	- 주식과 채권의 특성비교 - KOSPI지수와 KOSDAQ지수 - 부동산투자의 특징	51.7 31.3 46.9
보험, 은퇴 설계	위험관리와 보험	3	- 생명보험의 기능 - 자동차보험 종류별 담보종목 - 보험계약관련 법률 (보험법)	60.3 36.4 54.6
	은퇴설계	1	-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69.3
전 체		20	평균 정답률	49.6

평균 정답률은 49.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에는 재무지식 측정도구로 사용된 재무영역별 문항 내용과 각 문항별 정답률을 제시하였다. 정답률이 가장 낮은 문항은 CD(양도성 예금증서)의 정의, 기능 특성 등을 묻는 문항으로서 단지 21.7%의 대학생들만이 정답을 표기하였고, 금리와 인플레이션의 관계를 질문한 문항이 29.1%, KOSPI지수와 KOSDAQ지수의 개념과 산출방법 등에 대해 질문한 문항이 31.3%로 낮은 정답률을 보여주었다. 그에 반해,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의 종류를 질문한 문항은 72.3%로 가장 높은 정답률을 나타냈으며, 재무설계의 일반적 과정을 질문한 문항(71.1%),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기능과 차이를 묻는 문항(69.3%) 등이 비교적 높은 정답률을 보여주었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금융기관과 금융상품, 주식·채권·부동산 관련 문항이 포함된 자산운용 영역 7문항의 평균 정답률이 42.7%로 가장 낮았고, 위험관리와 보험, 은퇴설계로 구성된 영역 4문항의 평균 정답률이 55.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경제동향과 재무설계 기본지식으로 구성된 재무기초 영역 4문항의 평균 정답률은 52.0%, 소득과 지출관리, 신용과 부채관리를 포함한 현금관리 영역 5문항의 평균 정답률은 52.8%이었다.

앞서 분류한 재무관리행동 유형별로 대학생들의 재무지식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 재무지식 영역별로 정답을 맞힌 문항의 개수를 합산한 후, 그 평균 점수를 재무관리행동 유형별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재무지식을 측정한 문항 전체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평균 점수는 9.93점으로서, 이는 총 20문항 중 정답을 맞힌 개수가 평균 9.93개에 불과한 낮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재무관리행동 유형별로 비교해 보면, 합리적 관리형이 10.36점, 적극적 관리형이 10.53점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리적 관리형은 계획성 있게 지출하고 가계부를 작성하는 행동 특성을 가지고 있고, 적극적 관리형은 실제로 투자를 하며 재무설계나 재테크 정보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만큼 재무영역 전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식수준을 보유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반대로 재무지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합리적, 적극적인 재무관리행동이 가능했던 것

〈표 6〉 재무관리행동 유형에 따른 재무지식 평균 점수[1] 비교

(n=364)

영 역 (점수범위)	전체	합리적 관리형 (n=78)	미래 계획형 (n=127)	적극적 관리형 (n=96)	현재 지향형 (n=63)	F 값
재무기초 (0~4)	2.08	2.31 a	1.94 b	2.33 a	1.76 c	6.06***
현금관리 (0~5)	2.64	2.89 a	2.86 a	2.57 b	2.23 c	5.89***
자산운용 (0~7)	3.00	2.90 b	2.85 b	3.44 a	2.79 b	10.01***
보험, 은퇴설계 (0~4)	2.21	2.26	2.25	2.19	2.15	1.99
전 체 (0~20)	9.93	10.36 a	9.90 b	10.53 a	8.93 c	7.94***

1) 점수는 각 영역별로 정답을 맞힌 문항의 개수를 의미함.

*p<.05 **p<.01 ***p<.001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같은 문자로 표기된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미래 계획형의 평균 점수는 9.90점으로서, 이 집단의 경우 장기적인 재무목표와 미래에 대한 재무계획을 중시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재무지식 수준은 합리적 관리형이나 적극적 관리형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수준이었다. 현재 지향형의 평균 점수는 8.93점으로 모든 집단 중에서 가장 낮았는데, 이들은 미래를 위한 투자 보다는 현재의 소비를 중시하기 때문에 재무지식 전반에 대해 관심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재무지식 영역별로 살펴보면, 경제동향과 재무설계 기본지식으로 구성된 재무기초 영역 4문항의 전체 조사대상 평균 점수는 2.08점이었으며, 재무관리행동 유형별 집단간 차이는 전체 20문항에서 나타난 집단간 차이와 동일한 패턴을 보여주었다. 즉 합리적 관리형과 적극적 관리형의 점수가 각각 2.31점, 2.33점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미래 계획형이 1.94점이었으며 현재 지향형은 1.76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소득과 지출관리, 신용과 부채관리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된 현금관리 영역 5문항의 평균 점수는 2.64점이었으며, 합리적 관리형(2.89점)과 미래 계획형(2.86점)이 다른 집단 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특히 합리적 관리형의 경우, 계획성 있게 지출하고 가계부를 기록하며, 정기적으로 저축을 하는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현금관리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식수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산운용 기본지식과 금융기관·금융상품, 주식·채권·부동산 관련 문항이 포함된 자산운용 영역 7문항의 평균 점수는 .3.00점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 특히 지식이 부족했으며, 적극적 관리형이 다른 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적극적 관리형의 경우, 주식이나 펀드 등 수익성 높은 투자대안을 선호하고, 재무설계와 재테크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자산운용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지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위험관리와 보험, 은퇴설계로 구성된 영역 4문항의 평균 점수는 2.21점이었으며, 재무관리행동 유형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V. 결론 및 제언

대학생들의 재무관리행동을 유형화하여 각 유형별로 사회, 경제적, 교육적 특성을 분석하고, 대학생들의 재무지식 수준을 파악하여 이를 재무관리행동 유형별로 비교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의 재무관리행동은 합리적 관리형, 미래 계획형, 적극적 관리형, 현재 지향형으로 유형화되었는데, 합리적 관리형(n=78)은 계획성 있는 지출관리, 정기적인 저축, 가계부 기록, 쇼핑 시 구매목록 작성, 영수증 보관 등의 행동 특성을 갖는 집단이며, 미래 계획형(n=127)은 대학 졸업 후 경제활동에 대한 계획 및 이를 위한 아르바이트 수행, 장기적인 재무목표 보유 등의 행동 특성을 갖는 집단이다. 적극적 관리형(n=96)은 수익성 높은 투자대안을 선호하거나 이에 직접 투자하고, 재무설계와 재테크 정보, 경제뉴스, 재무교육 등에 관심이 높은 집단이며, 현재 지향형(n=63)은 미래를 위한 저축 보다는 현재의 소비를 중시하는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둘째, 재무관리행동 유형별로 대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한 결과, 1-2학년은 현재 지향형에 속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3-4학년은 미래 계획형과 적극적 관리형에 속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남학생은 적극적 관리형에, 여학생은 합리적 관리형에 속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가구주가 중졸 이하인 경우에는 대학생이 현

재 지향형인 경향이 높은 반면, 2년제 대졸 이상일 때는 적극적 관리형에 속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대학생들이 합리적 관리형인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극적 관리형 집단은 월평균 가계소득이 가장 높았으며, 대학생이 자유재량으로 지출 가능한 소득액이 높을 뿐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의 비율도 높았다. 반면, 대학생이 자유재량으로 지출 가능한 소득액이 가장 낮은 집단은 합리적 관리형이었다. 재무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은 합리적 관리형과 적극적 관리형 집단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셋째, 20개의 문항을 통해 조사대상 대학생들의 재무지식 수준을 파악한 결과, 평균 정답률은 49.6%로 낮은 수준이었고, 특히 금융기관과 금융상품, 주식·채권·부동산 관련 문항이 포함된 자산운용 영역이 42.7%로 가장 낮았다. 재무관리행동 유형별로 대학생들의 재무지식 수준을 비교한 결과, 합리적 관리형이 10.36점, 적극적 관리형이 10.53점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재무지식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고, 현재 지향형은 8.93점으로 가장 낮았다. 재무기초 영역에서는 합리적 관리형과 적극적 관리형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현금관리 영역에서는 합리적 관리형과 미래 계획형의 재무지식 수준이 높았으며, 자산운용 영역은 적극적 관리형의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몇 가지 제언을 덧붙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각의 재무관리행동 유형별로 대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맞춤형 재무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여학생들의 경우, 합리적 관리형에 속한 비율은 높은 반면, 적극적 관리형에 속한 비율은 낮았다. 즉 계획적인 지출이나 소득 및 지출 기록, 정기적인 저축 등은 잘 하지만, 주식투자 등 적극적인 자산운용 능력, 재무설계나 재테크에 대한 관심은 다소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1-2학년은 3-4학년에 비해 미래 계획형 행동과 적극적 관리형 행동 부분이 미약했고, 부모와 동거하는 대학생들은 분리 거주하는 대학생들에 비해 합리적인 재무관리행동이 부족했으며,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대학생들은 미래에 대한 재무계획이나 적극적 재무관리 부분이 미흡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성별, 학년별, 혹은 여타 집단별로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재무교육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대학교 1-2학년의 경우 현재 지향형에 속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던 고등학생 시절의 생활패턴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여 독자적인 재무관리행동, 미래에 대한 재무계획 등이 아직 정립되지 못했음을 내포한다.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이전해 가는 대학생들이 보다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재정자원에 대한 통제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정규교육 과정에 재무교육 영역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고, 대학교에서도 교양필수과목이나 학생생활 지원서비스 등을 통해 재무교육의 수혜 영역을 넓혀가야 할 것이다.

셋째, 합리적 관리형 집단에 속한 대학생들의 월평균 지출 가능액이 다른 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결과는 대학생 뿐 아니라 아동 및 청소년의 용돈교육과 관련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사료된다. 즉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스스로 계획성 있게 소득과 지출을 통제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적정 수준의 용돈을 책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넷째, 대학생들의 재무지식 수준이 100점 만점에 50점이 안 될 정도로 낮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재무관련 지식들이 대체로 용어가 어렵고 개념이 생소한 부분도 많아 쉽게 접근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관심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사료된다. 특히 정답률이 낮았던 금융상품, 주식 등 자산운용 관련 지식, 그리고 금리와 인플레이션의 관계 등 경제동향 부분은 실질적인 재무관리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고등학교 및 대학의 교육과정, 지역 및 사회교육기관의 일반 교양과정, 그리고 TV나 잡지,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재무지식을 보다 쉽게 학습하고 이를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조력하며, 다양한 교육매체를 활용하여 재무지식의 향상과 긍정적인 재무관리행동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합리적 관리형과 적극적 관리형 대학생들의 재무지식 수준이 현재 지향형 대학생들의 재무지식 수준 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은 재무관리행동과 재무지식 간의 연관성을 강조하기에 충분하다.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지출관리, 적극적인 재무관리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재무지식이 필요하고, 또 재무지식의 축적은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재무관리행동을 가능하게 해주며, 이는 결국 현재와 미래의 재정적 복지와 연결된다. 바람직한 재무관리를 수행하고, 재무지식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대학생 본인의 과제일 뿐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과제이다. 대학과 금융기관, 그리고 정부의 관련기관들은 재무교육 및 재무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대학생들이 합리적인 재무의사결정을 하고, 효율적인 재무관리를 통해 재무문제를 예방하며,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성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재무관리행동 유형을 중심으로 사회·인구학적, 경제적, 교육적 특성과 재무지식 수준을 비교하였는데, 향후 연구에서 가계의 재무안정성, 부모의 재무관리행동 등과 같은 가계 환경 특성, 재무정보 획득 경로, 재무교육 방법, 재무상담 경험 등과 같은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한다면, 보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논의가 가능해 질 것으로 사료된다.

■ 접 수 일 : 2007년 01월 15일
■ 심 사 일 : 2007년 01월 18일
■ 심사완료일 : 2007년 02월 26일

【참 고 문 헌】

1) 김경자(1998). 소비자의 금융지식과 금융정보 요구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3), 105-116.
2) 김경자(2003). 대학생들의 화폐태도와 개인재무관리 실태. 소비문화연구 6(3), 33-50.
3) 김경자, 홍정하(2002). 대학생들의 재무지식과 개인 재무관리 행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117-122.
4) 김영신(2005). 대학생 소비자의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 및 재무관리행동, 신용카드 사용행동의 하리성에 대한 인과분석. 가정관리학회지 23(5), 15-26.
5) 김정인, 송 훈, 나상록(2002). 20대의 소비 및 금융이용 행태. 국민은행 연구소 조사보고서.
6) 김정훈(1993). 남녀 대학생들의 금전관리관련 행태와 인식. 소비생활연구 11, 43-54.
7) 김정훈(2002). 여대생과 주부의 돈과 신용에 대한 태도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40(3),

89-99.
8) 김효정(2005). 대학생 소비자의 재무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3(7), 79-91.
9) 데이터투데이(2005년 10월 10일자). 대학생 40%. 최고 재테크는 부동산.
10) 머니투데이(2006년 11월 1일자). 고등학생 금융이해력 48.2점..미국에 뒤져.
11) 세계일보(2005년 10월 2일자). 대학생들. 재테크의 바다에 빠지다.
12) 세계일보(2007년 1월 14일자). 미래불확실. 대학생 재테크 열풍.
13) 이기춘, 박명희, 윤정혜, 손상희, 김경자, 성영애(1998). 소비자재무설계론. 학현사
14) 이연숙, 양세정, 주인숙(2000). 가계 재무관리의 이해. 신정.
15) 정순희(2003). 소비자재정설계. 신정.
16) 정운영, 황덕순(2002). 도시가계의 재무관리행동과 재무건전성. 대한가정학회지 40(2), 115-130.
17) 통계청(2005). 2005년 1/4분기 가계수지 동향.
18) 홍향숙(1999). 가계의 경제적 불안정성 유형에 따른 재무행동과 재정만족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 황덕순, 홍은실(2002). 여대생 소비자의 목표중심적 가치가 재정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2), 175-186.
20) Avard, S. (2005). The financial knowledge of college freshmen. College Student Journal 21(2). http://www.findarticles.com/p/articles/mi_m0FCR/is_2_39.
21) Baek, E.(2001). Financial concerns and problems of college students. Proceedings of the Association for Financial Sounseling and Planning Education, 16-25.
22) Bowen, C. F.(2002). Financial knowledge of teens and their parent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13(2), 93-101.
23) Chen, H. (1998). An analysis of personal financial literacy among college students. Financla Services Review 7(2), 107-129.
24) Chen, H. & Volpe, R. P.(1998). An Analysis of personal financial literacy among college students. Financial Services Review 7(2), 107-128.
25) Davis, E. P. & Weber, J. A. (1990). Patterns and obstacles to financial management.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1, 41-51.
26) Doll, K. M.(2000). Who would use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services on university campuses? Evidence from students, staff and faculty. Proceedings of the Association for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Education, 122-131.
27) Fizsimmons, V. S., Hira, T. K. Bauer, J. W., & Hafstrom, J. L.(1993). Financial management: Development of scales. Journal of Family Economic Issues 14, 257-273.
28) Garman, E. T. & Forgue, R. E (1997). Personal Finance (5th ed.). Houghton Mifflin.
29) Company: Boston, MA.
30) Godwin, D. D. & Koonce, J. C. (1992). Cash flow management of low income newlywed'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3, 17-42.
31) Hayhoe, C. R., Bruin, M. J. & Lawrence, F. C.(2000). Difference in spending habits and credit use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34, 113-133.
32) Horgarth, J. M., Beverly, S. G., & Hilgert, M.(2003). Patterns of financial

behaviors: Implication for community educators and policy makers. Proceedings of Federal Reserve System Community Affairs Research, 1-29.

33) Joo, S. & Grable, E. T. (2004). An exploratory framework of the determinants of financial satisfaction.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5(1), 25-50.

34) Jump$tart Coalition (2002). Jump$tart personal finance clearinghouse. http://www.jumpstart.org/mdb/jssearch.cfm.

35) Mayo, H. B. (1997). Investments: An Introduction. The Dryden Press.

36) McDowell, D. (2000). TSC readers shine on financial literacy quiz. The Street.com (April 15). www.thestreet.com/funds/deardagen/923371.html.

37) Mugenda, O. M., Hira, T. K. & Fanslow, A. M. (1990). Assessing the casual relationship among communication, money management practices, satisfaction with financial status and satisfaction with quality of life. Lifestyle: Family and Economic Issues 11(4), 344-360.

38) Poter, N. M., & Garman, E. T. (1993). Testing a conceptual model of financial well-being.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4(2), 135-164.

39) Redja, G. E. (1998). Principles of 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Addison-Wesley Educational Publishers Inc.

40) Titus, P. M., Fanslow, A. M., & Hira, T. K. (1989). Net worth and financial satisfation as a function of household money manager's competenc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7(4), 307-317.

41) Wahlund, R. & Gunnarsson, J. (1996). Mental discounting and financial strategies.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7(6), 709-730.

42) Wahlund, R. & Gunnarsson, J. (1997). Household financial strategies in Sweden: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8(3), 201-223.

43) Weagley, R.O. & Israelsen, C. L. (1998). Personal and Family Finance Workbook. University of Missouri Press.

44) Williams, F. L. (1991). Financial management practices by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nd their relationship to productivity, satisfaction with time management and quality of life. proceedings of the Association for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Education, 100-125.